

私立중학교사채용

女선생을 기피

私立각급학교의 여자교사 4%, 全南 27.5%, 全北 48.8%, 慶北 36.6%, 慶南 31.0%, 忠北 44.2%, 大邱市만이 총 2백74명 모집에 남녀비율을 절반씩으로 배정. 따라서 남녀비율을 아직 결정 안한 忠南(총 1백21명모집)을 빼면 전국 11개 지구가 총 2천4백46명 忠南

의 반을 사고 있다.

은 16일 시험을 앞두고

지난달 24일 한국 사학재단 연합회에 의해 고교 1학년 파르면 서울의 경우 총 14과목 32명 87명 모집의 여성 9.8%인 38명.

충남은 총 3백명 여성이 66명으로 22%, 仁川은 총 1백25명 중 31명으로 24.8%, 京畿道 24.7%, 江原道 31.1%

선발考查, 성적과 관계없이 32%만 뽑아
合格되도 임용은 “바늘구멍”... 거센 반발

서 지난 1일 문교부·國會문공위원·여성정책·심의위원회·民正黨여성정책 특별위원회 등에 이 계획을 전면시정토록 하라는 건의문을 보냈다.

실제로 86년의 문교 통계 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립 및 사립대학 사법계 재학생 7만 8천 9백 45명 중 여학생은 5만 1천 6명으로 65%. 87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총 2만 3천 2백 53명 중 1만 4천 8백 37명인 63%가 여학생이다.

한편 이러한 여성계의 반발에 대해 한국 私學재단측은 “성별모집은 신규교사를 채용코자 하는 각 私立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합하고 있다.

한국 私學재단연합회는 85년 첫 번째 실시된 인공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천 2백 83명, 서울에서는 1천 63명을 합격시켰다. 서울의 경우 파르면 3백 25명, 여성이 7백 38명이었는데 그중 남성은 61%가 임용되었다. 여성은 그 절반도 안되는 28%만이 임용되었